대한항공 격납고서 '비행기 그리기' 사생대회

'내가 그린 예쁜 비행기' 행사 참여자 협동해 대형작품 완성

대한항공이 15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 격납고에서 '제 10회 내가 그린 예쁜 비행기'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투게더-상상해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즐거운 세상'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날 행사에는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에릭 존 보잉코리아 사장, 전광수 한국미술협회 정무수석이사 등 대회 관계자와 참가 어린이, 학부모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내가 그린 예쁜 비행기' 10주년을 기념해 기존 행사와 달리 경쟁이 아닌 참가자 모두가 협동해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즐길 수 있는 축제 형식으로 마련됐다. 함께 만드는 즐거운 세상이라는 대회 주제처럼 참가자들은 가로 19.5m, 세로 12m의 대형 작품을 협동 채색해 작품을 완성했다.

'제10회 내가 그린 예쁜 비행기' 행사에 참가한 500명의 초등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그림을 채색하고 있다. /대한항공

이날 어린이들이 함께 완성한 작품은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항공기 외벽에 래핑돼 동심이 그려낸 '모두 함께(Together)'의 의미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된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상상바다캔들 만들기, 나만의 지구본 만들기 및 보잉 787-9 항공기 내부 관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참가 어린이들과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새로 나온 책

청년 시절

문학동네/J. M. 쿳시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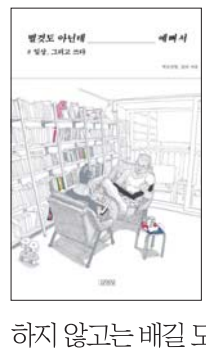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파르트헤이트(극단적인 인종차별정책과 제도)'가 절정에 달해 있었다. 인종 간의 갈등과 반목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샤프빌의 경찰서 앞에서 경찰이 유색인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전국에는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당시 케이프타운 대학교에서 수학과 영문학을 공부하던 쿳시는 대학 교내에까지 경찰 병력이 동원되는 상황을 개탄하며, 자신의 오랜 꿈이자 소명을 실현할 때가 됐음을 깨닫는다. 노벨문학상과 부커상 2회 수상에 빛나는 남아프리카의 대가 J. M. 쿳시의 자전소설. 존재의 중추신경을 건드리는 작가 쿳시의 자전소설 3부작 중 두 번째인 '청년 시절'은 혁명의 소용돌이로 혼란에 빠진 남아프리카를 떠난 그가 런던에서 진정한 예술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이십 대 시절을 다뤘다. 책에는 작가의 실제 삶과 소설적 허구가 뒤섞여 있다. 쿳시는 진실을 위해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는 것도, 여기에 허구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소설적 허구 때문에 사실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만을 추구했다. 책은 과거의 오점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작가로 자신을 재창조해가는 과정을 진실하게 그려냈다.

288쪽. 1만3800원.

/김현정 기자 hjk1@

별것도 아닌데 예뻐서

김영사/박조건형, 김비 지음



드로잉 작가 박조건형이 소설가 아내 김비와 함께 '별것은 아니지만 예쁜 우리의 일상'을 그리고 썼다. 열악한 노동 현장, 25년간의 우울증, 성 소수자의 삶, 가족, 결혼 등 두 사람을 둘러싼 여러 일상의 면을 따뜻하고 유쾌한 시각으로 그려냈다. 생계를 위해 펜보다 폐유를 만지는 날이 더 많고, 멀쩡한 날보다 상처 입어 찢어지는 날이 더 많다. 두 사람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일상이 소중해 기록하지 않고는 배길 도리가 없다고 말한다.

292쪽. 1만5800원.

/김현정 기자

에어부산 저비용항공사 최초 공항라운지 운영

에어부산이 저비용항공사 최초로 공항 라운지를 운영한다.

에어부산은 오는 20일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 4번 게이트 3층에 204㎡ 규모의 전용 라운지를 오픈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라운지는 약 6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에어부산 라운지 내부 공간은 최근 여행 추세에 따라 개인 독립공간과 가족 단위 공간으로 구성했으며 국내 항공사 라운지 최초로 좌식 구조의 열린 공간도 마련했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와 무선 충전이 가능한 좌석도 비치해 출발 전 스마트 기기로 여행지 정보를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다과와 샌드위치, 음료 등은 물론 부산 특산물인 어묵과 기장 미역 수프도 제공한다.

에어부산 라운지는 부산 출발 국제선 앞 좌석 유료 구매 손님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

오늘의 운세

9월 17일 (음 8월 8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날이다. **60년생** 좀 부족한 듯하나 남들의 부러움을 받는다. **72년생** 내가 가진 특기를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니 즐겁다. **84년생** 피곤이 쉬 풀리지 않는 날이니 휴식이 필요.

소 **49년생**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임을 명심. **61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이다. **73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 **85년생** 대목장 집에 기둥이 휘었다더니 자기 주변부터 살펴라.

호랑이 **50년생** 깊은 밤을 견뎌야 밝은 새벽을 볼 수 있다. **62년생** 내가 편안해야 집안이 잘 돌아간다. **74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되니 바른 사고를 지녀라. **86년생** 패망한 나라의 옥새가 무슨 소용.

토끼 **51년생**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행운이 온다. **63년생** 아는 길도 물어 가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75년생** 마음은 하늘의 별이라도 딸듯하나 자중할 때이다. **87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내 마음을 흔들어 대니 갈등이 생긴다.

용 **52년생** 자식 자랑에 입에 침이 마른다. **64년생**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처럼 느낀다. **76년생** 모래 위에 쓴 약속은 바람불면 날아가 버린다. **88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힘껏 노를 저어야 할 때이다.

뱀 **53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기도. **65년생**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이다. **77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이니 마음을 비워라. **89년생** 전체를 파악해야 내가 갈 길이 보인다.

말 **54년생**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오늘이 그 날이다. **66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가 있을 수 있다. **78년생** 규칙적인 운동과 즐거운 마음이 건강을 지켜준다. **90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않는 법.

양 **55년생**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67년생**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은 필요하다. **79년생**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다면 그물을 먼저 준비해라. **91년생**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 손안에 있음을 명심하자.

원숭이 **56년생** 둘을 얻기 위해 하나는 양보해야 한다. **68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내 실수도 튀어나온다. **80년생** 결과도 중요하나 과정을 무시하지 마라. **92년생** 벌을 두려워하고서는 좋은 꿀을 얻을 수 없다.

닭 **57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제가 필요한 날. **69년생**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자. **81년생** 때로는 깔끔한 포기가 득이 된다. **93년생**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으니 마음을 잘 다스리자.

개 **58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크게 보고 진행. **70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오는 법이다. **82년생** 아랫사람을 탓하지 말고 서류를 잘 살펴라. **94년생**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금물이다.

돼지 **59년생** 머리가 혼란하니 중요한 결정은 내일로 미루자. **71년생** 배우자가 나의 가장 큰 조력자. **83년생** 비단옷을 입고 한밤중에 돌아 다녀본들 무슨 소용. **95년생** 변화가 있는 날이니 외모에도 신경 쓰자.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1			5	9
5		9	7		4	6		
8				3		9		1
	3	2			8			
9				4		3		5
2		3	1		9	8		
				5			6	2
						5		

	4	9					1	
			9	7	5			
4	1	2				8		
	8		4	5		1		
	7	6		2		3		
6			8		2		9	
			5	9	7		8	
		5			4			

스도쿠 정답

3	2	6	9	8	5	4	1	7
4	7	8	3	1	6	2	5	9
5	1	9	7	2	4	6	3	8
8	4	5	6	3	7	9	2	1
1	3	2	5	9	8	7	4	6
9	6	7	2	4	1	3	8	5
2	5	3	1	6	9	8	7	4
7	9	4	8	5	3	1	6	2
6	8	1	4	7	2	5	9	3

3	5	8	2	4	1	9	6	7
7	4	9	6	8	3	2	1	5
2	6	1	9	7	5	4	3	8
4	1	2	7	3	9	8	5	6
9	8	3	4	5	6	1	7	2
5	7	6	1	2	8	3	4	9
6	3	7	8	1	2	5	9	4
1	2	4	5	9	7	6	8	3
8	9	5	3	6	4	7	2	1

문제 제공= 보누스

김상회의 四季

수의 좋고 나쁨도 시대 따라 살펴야 ①

땅에 집을 짓거나 건물을 세울 때 풍수적 원리에 들어맞는다면 이보다 더 만족스러울 수는 없을 것이나 좋은 땅과 터가 충분할 수는 없지 않는가? 따라서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풍수의 묘미라 할 수 있다. 전통적 풍수에서도 피융추길(避凶趨吉)이라 하여 좋은 터 좋은 배치의 풍수로 좋은 기는 받고 혹여 기운이 좋지 않으면 나쁜 땅도 고쳐 쓴다는 비보(裨補)의 지혜를 적용시켰다. 돈 많은 귀족들이나 제후들은 돈이 많으니 집터는 눈에 보아도 좋은 터를 잡아 호화롭게 집을 짓고 살았다. 일반 서민들은 형편이 되는대로 조상의 묘지를 썼던 것인데 어떤 집은 조상이 돌아가고 나서 잘되는 집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집도 있었다. 그 후 일어나는 일련의 발복(發福)이 있다면 특별히 그 원인을 찾지 못할 때 하는 말이 묫자리를 잘 썼나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풍수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물리적 풍수요건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사람이 살 땅도 부족하고 또 산을 헤쳐 터널을 뚫고 길을 내는 현 사회 상황에서는 풍수의 개념도 시대 따라 살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현실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후대의 발복을 위해 명당 터를 찾는 노력을 할 수 있고 이에 드는 자금은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엄두를 낼 수가 없다. 그러니 천하의 명당자리를 찾는 것은 재력가나 권력자가 아니면 힘든 것이다. 그렇다면 좋다는 명당 터를 가진 사람들은 대대손손 부귀와 영화를 누려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왜일까? 모든 복덕은 외형과 내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비유를 들어보자. 아무리 좋은 터에 묘를 썼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는 다고해서 발복이 저절로 있다는 말이 아니다. 음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잘 갖췄으니 인생사 매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소정의 성과 또는 기대 이상의 복들이 찾아오는 것이다. 또한 명당 터라는 게 당연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살림살이가 팍팍한 사람들은 평생 발복(發福)과는 먼 것일까? 그렇지 않다. 눈에 보이는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흔히 보이지 않는 힘의 도움으로 발복한다고 믿고 싶은 것이고 여기에 합치하는 이유를 바로 음택풍수에서 찾곤 하는 것이나 마음을 잘 쓰는 것은 명당 터를 쓰는 것 이상의 선한 과보를 보장한다. 명당 터를 만드는 노력을 유념해야 하는 것이니 바로 하심(下心)을 잃지 않으면서 자리 이타한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